

“노동부는 노동적폐 청산에 나서라”

25일, 노동적폐 청산 노동부 규탄대회... “불법과건, 노조파괴 현안 놓고 직접 대화하자”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10월25일 서울 노동청 앞에서 ‘노동적폐 청산, 무능 무성의 노동부 규탄대회’를 열고 노조파괴와 불법과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 노동부를 규탄했다.

이날 대회에 노조 인천지부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 경기지부 하이디스지회, 시그네틱스분회,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등 노동적폐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만든 ‘노동적폐 청산 민주노총 집중투쟁단’이 참가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투쟁 발언에서 “역사를 기억하자. 민주노총이 기간제법과 과건법을 합의한 1998년 노사정 합의가 비정규직 고통의 원인이다”라며 “기간제법과 과건법이 동지들을 현장에서 내몰아냈다. 그런 그들이 새 먹이감을 찾는 거 같다”라고 경고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우리는 전어도 콩나물밥도 필요 없다. 노동부 장관과 서울노동청장이 직접 나와 미래가 불투명한 해고 노동자와 현안을 놓고 직접 대화하길 제안한다”라고 요구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에게 “금속노조 기본협약 생취없이 현장 돌아가면 또 당한다. 정규직화에 흔들려 줄속합의 말고 당당히 노조할 수 있도록 기본협약을 맺어야 한다”라며 “동지들의 열망을 알고 있다. 금속노조가 울타리가 되겠다. 요구를 분명히 세워 사측을 압도하자”라고 격려했다.

이날 대회에서 노동부의 무능과 편향을 지적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경민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 교육선전부장은 “만도헬라는 정규직으로 고용할 여력이 있는데도 현장에 노조를 발 붙이지 못 하게 하려고 불법과건으로 고용했다. 노동청이 이걸 눈감아줬다”라며 “우리도 아는 불법과건 사실을 노동청이 모른다고

하는게 이상하다. 현장을 파악할 능력도 없으면서 우리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만도헬라 사측은 10월 25일 정규직 전환 제시안을 내놨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향후 회사

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다. 임금과 노동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모든 규정과 인사제도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만도헬라는 모든 조건에 동의해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하겠다고 조합원들을 겁박하고 있다.

윤민례 노조 경기지부 시그네틱스분회장은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신규사업부를 만들어 취업규칙 개정하는 법을 알려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다”라며 “시그네틱스분회 16년 투쟁 동안 노동부는 뭐했는지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는 길거리 헤매는 노동자를 현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노조파괴 비호 검사 잘라야 사법적폐 청산”

민주노총·노조 닷새간 노동적폐 오적 청산 투쟁...노조파괴 근절, 노조할 권리 완전 보장 등 요구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노동적폐 오적 청산 위한 집중 투쟁주간’을 선포하고, 서울 곳곳에서 투쟁을 벌인다.

노동적폐 오적은 ▲국회·보수정당 ▲노동부 ▲검찰 ▲재벌 ▲노조파괴 자본 대리인·김안장 등이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투쟁주간 이틀째인 10월 24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늦장 기소, 편파수사, 자본의 손 들어주는 검찰 규탄대회’를 열고, 노조 파괴 자본을 비호한 검사들의 청산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택지회, 유성기업영업동지회,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투쟁사업장 조합원들은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검사들의 행태를 고발했다. 조합원들은 논란을 일으킨 검사들의 인적 청산 없이 사법적

폐 청산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수일 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부지회장은 “검찰이 사측의 고소는 일사천리로 처리해 조합원들이 벌금, 집행유예 등 사법처리로 신음하고 있다”라며 “지회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발은 손 놓고 있다. 증거자료 5천 페이지를 장식장 안에 고스란히 넣어두고 방관하고 있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규탄대회에 앞서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10월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KEC 손해

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KEC지회는 광정소 KEC 대표이사과 간부들, 회사 자문노무사인신쌍식 노무사에게 모두 1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집중투쟁단은 25일 김안장 법률사무소와 고용노동부 서울지청 앞에서 투쟁을

벌인다.

투쟁단은 집중투쟁 나흘째인 26일 서울 잠실 한라그룹 본사와 서초동 삼성그룹 본관 앞에서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 비정규직 노조파괴에 앞장서는 재벌을 규탄하는 싸움을 전개한다.

투쟁단은 투쟁주간 마지막 날인 27일 대검찰청을 다시 찾아 검찰의 편파 수사를 규탄하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면담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상균 위원장, ‘조지 미니-레인 커클랜드 인권상’ 수상

25일, 미국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시상식... “노동자 권리 방어위한 변함없는 투쟁 기린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미국 노동총연맹-산별노조회의(AFL-CIO, 아래 미국노총)가 주는 2017년 ‘조지 미니-레인 커클랜드 인권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10월 24일 오후 7시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현지 시각)에 열렸다.

리처드 트롬카 미국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기업의 탐욕과 정치 부패에 맞선 대

규모 노동자 시위를 이끌었다. 노동 운동을 위해 많은 개인 희생을 감내하면서 일생동안 노동자 권리를 위해 투쟁해왔다” 라고 소개했다.

‘조지 미니-레인 커클랜드 인권상’은 미국노총이 매년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영감을 준 인물에게 주는 상이다.

한상균 위원장은 시상식에 앞서 10월 12일 수상소감을 담은 옥중

서신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한미 두 나라 노동조합이 모든 이들이 노조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트럼프의 한미 FTA 재협상에 대응해 노동자 민중에게 유리한 새로운 무역체제와 경제 질서를 새롭게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세계 평화를 위해 촛불을 함께 들자” 라고 제안했다.